

## 동네의원의 자발적 환자의뢰-회송 모델(내과/안과) 사업 소개



이 재 범

대한안과의사회 회장  
jblee1017@daum.net

---

〈편집자 주〉 대한개원내과의사회와 대한안과의사회는 MOU를 체결하고, 고혈압 환자와 당뇨병 환자들의 안과적 합병증 치료를 위해 상호간의 협진 및 환자 의뢰-회송을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본 사업이 잘 운영되면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안과적 합병증으로 인한 진단과 치료를 적시에 받게 되기 때문에, 합병증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 인해 국민건강과 건강보험재정의 효율화에 기여할 것이다. 양 의사회는 우선적으로 서울시 내 내과-안과에서 먼저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의원 간 수평적 의료전달체계 구축 모델로서 혁신적 시도로 평가받는 동 사업의 취지와 사업모델, 세부사항 등에 대해서 다뤄보고, 정책적으로 어떤 의의가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

## 1. 사업 배경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암이나 전염병 관리는 다른 국가에 비해 잘 하는 걸로 통계가 나와 있지만<sup>1)</sup> 만성질환관리는 그렇지 못해서 우리나라 보건통계에 따르면 대표적 만성질환인 당뇨병 사망률은 OECD 평균의 1.5배이고, 당뇨병 환자에서 혈당관리 실패 등으로 인한 입원률은 OECD 평균의 2배 수준이다.

대한당뇨병학회가 발표한 당뇨병 팩트시트 2018(2011~2016년 통합, 국민건강영양조사 기반)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대한민국 당뇨병 유병률은 14.4%이며 당뇨병 환자도 501만 7,000명이다. 70세 이상에서는 27.2%였던 유병률이 29.1%로 늘어나면서 고령층의 당뇨병 유병률이 높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8년 3월에 발표한 당뇨병 적정성평가 결과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의 합병증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검사 시행률은 매년 높아져서 당화혈색소 검사 81.1%, 지질검사 79.0%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에 반해 당뇨병 발생 시 눈의 합병증을 조기 진단하기 위한 안저검사가 44.4%로 낮고 특히, 의원급 안저검사 시행률은 38.8%로 더 낮게 조사되었다.

당뇨병성 망막증은 심각한 시력 상실을 유발하고 안저검사로 조기 진단이 되는 경우 심각한 시력상실의 발생 위험을 50-60%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필요한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당뇨병 환자에서 안저검사 시행률이 너무 낮아 내과계 및 안과 회원

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홍보가 필요하다.

또한, 의료전달체계에서 보면 의료전달체계(health care delivery system)는 보건의료체계의 하위체계로서 “가용 의료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필요할 때에 적시에,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적합한 의료인에게, 적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 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한국의 의료체계는 의료기관의 기능분화 미흡과 무제한적 경쟁양상으로 동네의원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동일환자를 두고 경쟁하는 구도로써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과 일차의료기관의 경영악화가 동시에 발생하며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 등의 미래 환경변화에 대한 탄력적 대응에 한계가 있어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데 의약분업을 시행할 당시 전체 의료보험 재정 중에서 의원급이 차지하는 비율이 42% 였으나 2016년에는 20%도 안 되는 수치를 보이며 일반 국민들의 가장 가까워서 진료일선을 담당하고 있는 일차의료기관의 규모가 점점 줄고 있는, 곧 ‘일차의료기관 붕괴’라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에 국가도 일차의료기관 살리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에서 현재 문제가 되는 대표적인 만성질환인 당뇨병, 고혈압을 효율적으로 잘 관리를 하면서 일차의료기관을 살릴 수 있도록 개원내과의사회와 안과의사회 양 단체가 만나 의논하고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

1) 암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168.4명(2015년)으로 OECD 평균(201.9명)에 비해 낮은 편임(OECD Health Data 2018 참조)

- 2011년 185.1명에서 2015년 168.4명으로 16.7명 줄어두고 2011과 2016년 사이 OECD 회원국 평균 암 사망률은 7.5명 줄어들어, 우리나라의 감소폭보다 적음

- 남성의 암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259.0명(2015년)이고, 여성의 암 사망률은 111.1명(2015년)으로 OECD 회원국의 평균 암 사망률 264.3명(남성), 160.0명(여성)에 비해 낮음

## 2. 경과과정

지난 2018년 3월 5일에 대한안과의사회(이하 안과의사회)와 대한개원내과의사회(이하 개원내과의사회)가 만성질환(당뇨병, 고혈압) 최적치료를 위한 업무 협약(MOU)을 맺었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 안과의원과 내과의원이 상호 협력하여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환자들을 서로 쌍방간에 의뢰 및 전원함으로써 최대한 효율적인 진료와 관리를 시행하여 내과 질환의 안과적 합병증으로 인한 불행한 시력저하를 줄이고 또한 안과로 오는 환자 중에서 안저를 진찰하는 과정에 당뇨병이나 고혈압을 좀 더 조기에 발견하여 이를 즉시 내과에 적극적으로 의뢰를 함으로써 당뇨, 고혈압의 만성질환 진단과 치료를 좀 더 용이하게 하여 국민 건강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 3. 사업모델

그런데 현재 상기와 같이 국가가 당뇨병 적정성 평가를 통해 만성질환관리를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안저검사 시행비율이 너무 낮아 기존 방법으로 힘들고 양 단체가 특별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는데, 우선 양 단체 공동으로 쌍방간에 환자를 쉽게 의뢰를 할 수 있도록 간단히 작성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양면에 표준진료의뢰서 및 회신서(전면은 내과 ->안과의뢰서, 후면은 안과 ->내과의뢰서) 작성하고 이를 바로 환자들에게 직접 전해 주어서 실제로 환자가 진료를 볼 수 있도록 독려하도록하였고 또한 당뇨의 지속적인 내과적 치료와 안저검사 수검의 중요성을 나타낼 수 있는 홍보포스터(포럼 뒷 표지 참고)를 한 장으로 만들어 양 단체

의원 원내에 붙여서 환자들이 한 눈에 쉽게 보고 인지할 수 있도록 인쇄하여 양 단체 회원들에게 직접 배포를 하였다.

아울러 학술대회에서 내과 치료 및 안과적 합병증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양 단체 교차 강의를 하여 양과의 협진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널리 알려주고 상대단체 학술대회나 정기총회에 상대단체 지도부가 주기적으로 참석하여 지속적으로 양 단체 회원들에게 계속 홍보를 하도록 하였다. 나아가 이를 신문이나 인터넷 매체를 통해 회원과 일반 국민들에게 역시 적극 홍보하였다. 또한, 양 단체 회원들이 서로 업무협약 내용을 서로 잘 공유하고 의뢰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지리적으로 가까운 양 단체 회원들과의 만남을 독려하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먼저, 2018년 8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서울지역 안과의원과 내과의원간에 시범사업을 시행한 이후, 3월 이후부터 전국의 안과의원과 내과의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이런 환자 협진에 대한 데이터를 모아 그간의 사업의 성공 여부를 확인하여 향후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충하도록 하였다.

## 4. 기대효과

이런 동네의원간의 환자 의뢰-회송 모델 개발로 인한 의료전달체계의 수평적 의뢰는 당뇨병 환자에게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안과 진료가 중요함을 알려서 당뇨, 고혈압이라는 만성질환을 내과적 및 안과적으로도 효율적으로 잘 치료를 받아 국민 건강 및 안 건강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아울러 현재 환자 의뢰-회송 수가신설사업이 일차의료기관과 상급종합기관간의 시범사업으로 진



